



#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요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 루가 제8주일

성 올림바, 성 소시파트로스, 성 테르티오스  
70인 사도

제4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도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갈라디아 2,16-20 / 봉독서 295
- 복음경: 루가 10,25-37 / 128. B 7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요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12일에 한 분의 위대한 자선 성인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이셨던 성 요한(A.D. 7세기)이십니다. 모든 성인들을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자선입니다. 즉, 성인들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거룩한 복음사가가 가르치고 있듯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요한 성인의 자선은 이렇처럼 되어 자비로운 분이란 명칭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서 계속 사용하게 되어 남게 것입니다. 자선가와 사회적 후원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자선을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성인들은 오늘날 대다수의 자선가나 사회 후원자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성인들이 주고, 베푸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 덕으로 쌓아가는 영적 성장

성 요한 수도자는 ‘천국의 계단’(끌리막스)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성인입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세속을 떠나 시나이의 성 카테리나 수도원에 수도자로 입문했으며 이후, 광야에서 40여 년간의 엄격한 수도 생활로 단련하며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성인이 남긴 저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영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소심함에 대하여’ — 소심함(적극적이지 못한 믿음)은 우리 영혼이 마치 허영심으로 늘어버린 사람처럼 되는 초기 단계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한순간의 좋지 않은 생각으로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
- ‘침묵에 관하여’ —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침묵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적들인 사탄과 싸울 수 있게 한다. 마음속의 신성한 불꽃을 보존하게 하며,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는 침묵을 배움으로써 영혼의 적들을 잘 살피게 되고, 애통함과 눈물의 친구가 되게 해준다. 죽음과 지옥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도록 이끌어 준다. 침묵은 남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며, 영적 지식의 성장을 가져오게 만들어 준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신비스럽고 영적인 곳으로 나가게 하며, 비밀스럽게 숨겨진 그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 ‘기도에 관하여’ — 기도의 참맛을 배운 사람은 마치 왕의 귀에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처럼 지극히 높은 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모든 백성에게 둘러싸인 왕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일에 정신이 팔린 채 기도하는 사람은 소란스러운 시장 바닥에서 있는 왕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다.
- ‘허영’ — 모든 형태의 허영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탄의 계략이며 인간의 퇴락이다.
- ‘금식’ — 예수님께서 마셨던 초와 쓸개를 기억하라. 그러면 금식하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수다’ — 수다는 허무의 옥좌이며 무지의 증거이고 비난의 관문이며 거짓의 시종이다.
- ‘겸손’ — 겸손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라. 그러면 그들의 품행을 배울 것이다.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장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안드레아스 코나노스 신부

오늘날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는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4세기의 교부 성 요한 흐리소스툼이 '어떻게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결혼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짝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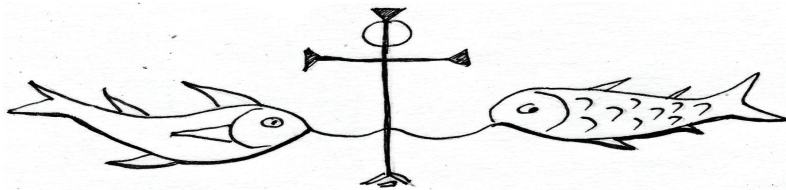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자신과 일생을 함께할 배필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혹시 아래의 기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당신과 저기 어딘가에 있을 그 또는 그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린 아마도 서로 나란히 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가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 많은 계획 속에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시고, 지금 어느 곳엔가 있는 그(녀)를 보호하소서! 그(녀)를 지켜주시고, 저와 우리의 만남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켜 주시며, 그(녀)에게 당신의 성령을 선물로 주소서. 당신의 축복과 사랑을 그(녀)에게 주시고, 모든 유혹과 시련과 육체적이고 영적인 위협에서 그(녀)를 보호해주소서."

▶ 아타나시아



## 소 식

### 대교구

#### ■ 성탄 대림절 시작

오는 11월 15일(금)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아래와 같은 금식 기간이므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축일표에 따라:

- 11월 15일 – 12월 17일: 생선은 허용되며 육류는 금합니다.(단, 수·금요일엔 육류는 물론 생선류도 모두 금합니다.)
- 12월 18일 – 12월 24일: 엄격한 금식으로 육류와 생선류 모두 금합니다.

#### ■ 철야예배

오는 11월 29일 – 30일에 성 안드레아 축일을 맞이하여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4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성모희보 성당

#### ■ 가을 바자회 결산

지난 11월 3일(일) 성찬예배 후에 정기 바자회를 했습니다. 여성회가 주관하여 음식과 옷가지 그리고 여러 생활용품들을 전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회와 학생회 회원들도 간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바자회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도우며, 특히 새롭게 작은 음악회를 선보여서 모금도 하고 바자회의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를 통하여 교인들의 화합과 선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수익금은 관할 구역 자선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간예식

- 11월 13일(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축일
- 11월 16일(토) 성 마태오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